

[종합]

‘김대중대통령 전시관’ 문 연다

국내 첫 전직 대통령 기념 전시관인 ‘김대중 전시실’이 문을 연다.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관장 류상영 국제대학원 교수)은 김 전 대통령과 관련된 각종 사료를 모아놓은 전시실을 최근 완공, 2일 문을 연다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의 동고동 자택 바로 옆에 위치한 김대중 도서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전직 대통령 도서관으로 연세대가 아태재단으로부터 건물과 사료를 기증받아 2003년 11월 개관했다. 도서관 개관 3년 만에 문을 여는 전시실은 도서관 내부 지상 1~2층, 지하 1층 총 500평 공간을 리모델링해 만들어졌다. 전시실에는 김 전 대통령이 기증한 각종 사료 500여점, 대통령 재임 시 해외 정상들로부터 받은 선물 183점, 김 전 대통령 기증 장서 3천여권, 각종 영상 자료 등이 선보인

연세대 내일 개관... 전직 대통령으론 처음 DJ 기증 사료 500점·장서 3,000권 등 전시

다. 자료 대부분은 그동안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던 것들로 1950년대 각종 언론 기고문, 훈장 등을 비롯해 목포상고 시절을 엿볼 수 있는 학적부, 결혼 반지, 가족과 나는 편지, 교도소 수감 시절 입은 수의 및 장갑 등 개인적 물품이 여럿 포함돼 있다. 대통령 취임 직후 국정노트에 적은 ‘대통령 수칙’도 공개돼 눈길을 끈다. 15가지로 적은 대통령 수칙에는 ‘인사정책이 성공의 길, 아첨한자와 무능한 자를 배제할 것’, ‘불행한 일도 감수하되 최선을 다할 것’, ‘국민의 애국심과 양심을 믿을 것’

‘언론보도를 중시하되 부담한 비판 앞에 소신 바꾸지 말 것’ 등 대통령으로서의 다짐을 엿볼 수 있는 대목들이 적혀 있다. 사료들의 동고동 옛집을 복원한 미니어처, 1978년 김 전 대통령이 서울대 병원에 연금당했을 때 썼던 쓴 편지 내용이 보여주는 입체 영상, 관람객들이 대통령 업무를 체험할 수 있는 ‘대통령 되어보기’ 코너 등 관람객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볼거리를 다양하게 마련했다. 도서관 개관 시 연유를 “김 전 대통령의 일대기 순에 따라 전시 공간을 구성했다”며 “특히 전시실 내



지난달 31일 오전 동고동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개관 언론공개행사에서 참석자들이 김 전 대통령이 청주교도소 수감시절(1981~1982년) 입었던 수의를 보고 있다.

부를 흑색, 청색, 적색, 황색, 백색 전시실 개관식은 2일 오전 11시 등 우리 고유의 다섯가지 색깔로 표현해 김 전 대통령의 인생 역정을 상징화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목포해양경찰청 12월 신설

오는 12월 1일 목포와 강원 동해, 부산시에 서해, 동해, 남해 지방해양경찰청이 각각 설치된다. 이와 함께 해양경찰청의 조직 체계도 현행 목포, 인천, 동해, 부산 등 4개 본부 체제에서 3 지방해양경찰청과 1 직할서 체제로 개편된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해양경찰청의 목포, 동해, 부산 등 3개 본부를 지방해양경찰청으로 승격시켜 서해, 동해, 남해 지방해양경찰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조직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목포와 동해, 부산해양경찰청의 서장이 겸직해온 본부장의 직무도 총경에서 경부관으로 높아진다. /최원길기자 cki@kwangju.co.kr

이혼때 부부재산 똑같이 나눠 갖는다

내년부터... 자녀 양육 미흡의 시 이혼 불가. 앞으로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원칙적으로 동등하게 나눠 가져야 하며, 이혼 전 1~3개월 동안 이혼 여부를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부여하는 이혼숙려(熟慮) 기간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민법 및 가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률안 14건과 시행령 5건 및 일반안건 4건을 의결했다고 김창호 국장총무처장이 발표했다. 개정안은 이혼 시 재산분할의 부부평등 원칙을 살려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균등 분할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이혼 제기요구에 서 통과되면 법안 공포 후 6개월 이내

광고: 빛의만평 - 김중두. Includes an illustration of a person with a speech bubble.

국내 첫 '휴대폰학과' 개설

成大·삼성전자 협약... 올해 안에 석·박사 40명 선발. 성균관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휴대폰학과'를 개설한다. 성균관대는 다음 달 3일 국내 600주년 기념관에서 서정문 총장과 삼성전자 정보통신총괄 이기태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 정보통신대학원에 휴대폰학과를 개설하기로 하는 협약을 맺었다고 지난 달 31일 밝혔다. 성균관대는 석·박사 연계 과정 6명을 포함, 박사 12명과 석사 40명을 올해 안에 선발해 내년부터 학사입학을 시작할 예정이다. 입학 희망자들은 성대의 서류 전형 절차를 거친 뒤, 삼성전자의 면접 등을 통과해야 한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제 41회 광주시민의 날' 오늘 시청앞 광장 기념식... 2천여명 참석

'제 41회 광주시민의 날' 기념식이 1일 오전 11시 시민과 공직자 등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청 앞 문화광장에서 열렸다. 기념식은 개회, 국민의례, 시민대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 등의 순으로 진행되며, 기념식에 앞서 오전 10시 40분부터는 시립 국극단의 식전공연이 펼쳐진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에는 광주시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 민주의종각에서 시민의 날을 기념하는 '민주의 종' 타종식도 거행된다. 민주의 종 타종은 시청 각본에서 선정된 8명이 타종하게 된다. 타종 인사로는 임우진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강박원 광주시의회의장, 김동찬 전 광주직할시장, 김진영 광주일보 사장, 마형철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나무석 광주시 체육회부회장, 안희옥 시민단체협의회 대표 그리고 소년가장인 송진공과 양병재 군이 참여하게 된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터치스크린 투표' 체험 광주지역 중학교 학생들이 지난달 31일 오후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 '터치스크린 투표'를 체험하고 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공무원 e-메일 도메인 'korea.kr'로 통합

현재 개별적 또는 부처별로 사용되고 있는 공무원들의 e-메일 도메인 korea.kr로 통합된다. 국정홍보처는 31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직자 통합 e-메일 구축사업'에 관해 보고하고 각 부처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했다. 공직자 통합 e-메일 구축사업은 공무원들의 개인별 혹은 부처별 e-메일 사용으로 예산낭비와 일부 불편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국정홍보처가 이를 통합해 업무를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지난 5월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사업. 홍보처는 이를 위해 예비비 36억원

Advertisement for '분실' (Lost) and '분묘개장공고(2차)' (Gravestone Opening Announcement).

Advertisement for '상속한정승인공고' (Succession Limitation Confirmation Notice).

Advertisement for '변호사 개업인사' (Lawyer Opening Office Notice).

Advertisement for '무담보 무보증' (No Guarantee, No Collateral).

Advertisement for '건물임대' (Building Rental) and '변호사 개업인사' (Lawyer Opening Office Notice).

Advertisement for '부동산 공매공고' (Real Estate Public Auction Notice).